

제 61 호

서기 1998년(단기4329년) 7월 20일(월요일) 발행

서기 1991년 9월 26일 창간

구독신청 전화: (02)244-3717

기사 및 원고전송 팩스: (02)243-1073



發行人: 金相勳

編輯人: 金命會

印刷人: 宋載勳

發行處: 安東金氏大宗會

서울 特別市 東大門區 徽慶1洞 112-49

우편번호: 130-091

전화: (02)244-3717, fax: (02)243-1073

대체계좌: 010983-31-0513119

第31回定期總會 盛大히 開催

지난 5월 2일(토) 오전 11시에 용산 세계일보사 강당에서 경향각지에서 300여 중인들이 참석하여 제31회 정기총회를 성대히 개최하였다. 회순에 따라 開會辭에 이어 成員報告 國民儀禮 先祖英靈에 대한 默念을 마치고 새로 제작된 宗旗 寄贈式에 이어 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었다.(인사말씀 별기) 다음 會議錄에 署名할 會員을 按廉使公派 聖會宗親과 翼元公派에 滿吉 宗親을 指名하였다. 다음은 그 간 宗事に 많은 協力을 하고 또 學究에 열중하여 博士學位를 取得한 宗親, 考試에 合格한 宗親들에게 感謝牌과 表彰牌 및 祝賀牌를 授與하였는데 感謝牌는 宗事に 不斷한 協贊과 우리 安東金氏의 像徵을 담은 宗旗와 吊旗를 制作하여 寄贈해 주신 三扶海運株式會社 會長 按廉使公派 泰隣賢宗에 授與하고, 表彰牌는 우리 宗旗의 圖案을 훌륭히 圖案해 준 提學公派 相沃賢宗의 따님 英蘭宗親에 授與하였다. 다음으로 祝賀牌는 按廉使公派 泰勳, 翼元公派 泰龍, 泰碩, 按廉使公派

相會, 典書公派 泰勳에게 각각 授與하였다.

다음은 洙栢監事로부터 監查報告를 마치고 '97年度 會計決算報告와 '98年度 豫算案承認, '98年度 事業計劃承認, 定款一部改正을 原案대로 承認하고 끝으로 任員紹介를 한 다음 閉會를 宣言하고 반주를 걸으며 점심식사를 시작하였는데 다같이 술잔을 높이 들어 우리 안동김씨의 발전을 축하하는 건배를 會長님의 선창으로 다 같이 제창하고 화기에애한 談笑를 나누며 점심을 마치고 下午 2시경 散會하였다.

인사말씀

오늘 우리 대종회 1998년도 정기총회에, 제가 회장으로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하고, 지난 1년 동안, 부회장님들과, 각과회장님들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들, 그리고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는 종원여러분들의 돌보심에 힘입어 대과없이 지나게 된 점에 대하여 이 자

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대종회의 오늘을 있게 한 역대 회장님들과 역대 임원님들, 그리고 유공회원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치하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종회가 창립되어 남의 집을 전전하던 어려운 시절을 생각하면 오늘의 대종회 살림은 너무도 넉넉하고 또 그 간에 있는 위선사업의 족적을 돌아보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종사일에 정성을 쏟아부었는가를 스스로 알 수 있어 그 고마움에 저절로 머리가 숙여짐을 어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회장의 명을 받고 모처럼 회에 이바지할 기회를 갖게 되기는 하였으나 남의 일을 대신 맡아, 돌아다녀야 하는 직업특성 때문에, 실제로 회무를 돌아볼 여유가 많지 않았고, 또 능력에도 한계가 있어 아무하는 일 없이 1년을 보내게 되어 죄스러운 마음을 금 할 수가 없고, 그 점에 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널리 해량하여 주시기를 비는 바입니다.

그런데 제가 회무에 전념하지 못하다 보니까 대종회를 밖에서 그것도 제 3자적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는 있었다고 보여지고, 그렇게 바라본 대종회의 자리, 위상은 많은 장점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금의 아쉬움도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장점은 당연한 일이니까 빼고 오늘은 그 아쉬움에 관하여 조금 짚어보고, 그 점을 보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에 관하여, 앞으로 조금씩 의견들을 조율하여 가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되지 아니할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느낀 첫 번째 아쉬움은 회가 너무 경직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지금 온나라가 IMF한파로 들끓고 있고 모두가 살아남기에만 힘을 쏟다 보니까 발전보다는 수성에만 전념하고 있는 형편이고 그런면에서 본다면 우리 대종회는 미리 알고 구조조정을 마치고 수성에 들어간 상태라고 비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대종회는 경직되어 있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우리 대종회의 그러한 경직성은 지난 한때의 경험에서 얻은 교훈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런지 모르나 모든 발전은 변화에서 온다는 진리에 비추어 생각할 때에, 지나친 경직, 변화에 대한 두려움은 그것이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할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아쉬움은 "의사표현에 관한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얼굴이 다르게 생겼고, 목소리도, 생각도, 가치관도, 다를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다른 것이 정상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대종회가 잘되기를 각자가 바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종회의 발전을 위하여 좋은 생각,



좋은 방법을 제시하고 그것이 실천되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위와 같은 생각이나 방법은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생각과 방법과 같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모두가 대종회를 위한 생각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똑같은 일이지는 하나 구체적인 일을 위한 생각이나 방법에 있어서는 서로 다를 수도 있는 일이고, 그 다르다는 점에 있어서 어느 것이 절대적으로 옳고, 어느 것이 절대적으로 그르다고 단정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모든 사고나 방법은 일장일단이 있는 일이고, 또 상대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내 의견이 귀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도 내 의견을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면에서 우리의 대화방법에 관하여 조금씩 연구해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결산과 예산도 심의하여야 하고 화수룩 제작에 관하여서도 좋은 의견들을 나누어 주셔야 하게 되어 있어 인사말씀을 절약하였어야 하는데 너무 길어진 것 같습니다. 특히 화수룩 만드는 일에는 각과회장님들과 이사님들 그리고 종회원 여러분 모두의 적극적인 협력 없이는 무의미한 일이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모두 우리 대종회의 발전을 위하여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가름하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公 告

지난總會에서承認해 주신會員名簿 發刊에 대한收單을 1998년 7월 1일부터 接受하오니 宗親諸位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參加하시기를 仰望 하나이다.

1. 收單金額: 冠童없이 1人 3,000원
2. 冊 代: 卷當 10,000원
3. 門中遺蹟收錄: 1件當 50,000원
4. 收單者手數料: 收單1人當 1,000원
5. 收單用紙樣式 및 遺蹟收錄規格은 同封한 例示文을 參照해 주시기 바랍니다.
6. 收單磨勘: 1998년 12월 30일

1998년 7월 1일

安東金氏大宗會

會員名簿發刊推進委員會

會長 金相勳



大宗會 理事(運營委員,監事)會議開催

지난 4월 18일(토) 오전 11시 大宗會 會議室에서 ①97年度 會計決算과 ②97年度 事業經過報告, ③98年度 歲入歲出豫算案審議, ④98年度 事業計劃審議, ⑤定款一部改正 등의 案件을 審議 議決하여 돌아오는 총회에서 承認을 얻고자 理事會議을 開催하였다. 會順에 따라 開會辭, 成員報告, 國民儀禮, 先祖英靈에 對한 默念을 마치고 會長님의 인사말씀에 이어 洙栢監事로부터 會計決算에 대한 監查보고가 있는 다음 97년도 決算報告를 하였는데 店舖賃貸料中 地下 한국제책소의 不渡로 발생한 임대료 관리비 보증금 미납금 이자 등의 미수금 9백4십5만 3백원의 결손처분을 요청 하였으나 의원공과 在光이사로부터 이 결손처분건에 대하여는 당년에 처리하는 것은 너무 시기상조이니 1년쯤은 보류하여서 다만 얼마라도 더 징수토록

촉구한다음 그래도 징수가 불가능하면 明年度 決算理事會에서 처리함이 마땅함을 동의하여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하였으며, 그 외는 原案대로 통과하였다. 다음으로 97年度 事業經過報告를 마친 다음 98年度 歲入歲出豫算案과 事業計劃을 上程하여 總務의 설명을 들은 다음 淸州 泰英宗親이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하니 전원 큰 박수로 승인하였다. 끝으로 定款一部 改正案을 上程하여 現 定款 3章 7條 任員. 本會에 다음의 任員을 둔다 3項 理事 50人을 從前 各派에 配分된 理事 50名은 그대로하고 그의 '會長이 5名 이내로 理事를 추천할 수 있다'로 改正 決議하였다. 이와같이 진지한 審議를 거쳐 上程된 案件을 모두 決議하여 會議를 閉會하고 점심식사를 마친 다음 하오 2시경 散會하였다.

安東金氏 文溫公派 舍人公後孫之墓

여기 소개하는 合同墓地는 文溫公의 15世孫 諱 孟德以下 四代의 内外分墓所가 慶北 義城郡 多仁面 金谷里와 醴泉에 모셔져 있었는데 文溫公 21世孫이며 大宗會 理事인 琮會賢宗이 主管하여 現 時代의 思潮를 감안하여 舍人公後孫들이 先塋의 墓所를 失傳하지 않고 千世萬世 永遠히 守護할 수 있게 合同靈墓를 封築하고 墓渴銘에 安東金氏文溫公派 舍人公系後孫之墓라고 새겨 建堅하고 墓돌레석에는 諱字를 刻字하여 神位別로 부착하였으며 床石을 크게 設置하고 享祀도 한날 합동 奉享키로 하였다. 이로써 琮會賢宗은 혹시 祖上님께 누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이 가시지 않는다면서 다

음과 같이 말을 하였다.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풍습을 숭상하면 현실에 잘 맞지 아니하고 현실에 너무 치우치면 전통을 잃어버리기 쉬운 바 우리의 묘지 관리 제도가 이러할진대 근래에 묘지로 인하여 국토가 심하게 훼손되고 자연환경이 파괴되어 묘소를 모시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렇게 모신 제도는 전통과 현실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것은 역시 선각자의 앞서가는 생각과 행동이 국가와 민족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며 또 先塋의 墓가 동서남북으로 흐트러져 있을 적에 失傳할 소지가 많은고로 이렇게 할진대 永世不忘되지 않겠느냐”면서 여운을 남겼다.



棟慶墓苑 由綠碑 除幕式 舉行

지난 4월 23일(목) 오전 11시에 淸原郡 梧倉面 福峴里(粉土洞) 知州事公墓域에 按廉使公後嗣 3位 按察使 諱佩公 少尹 諱淪公 正郎 諱淪公의 塋墓緇禮 또는 靈墳을 封築하여 棟慶苑을 營建하고 竣成告由行事를 墓域에서 舉行하려 하였는데 日氣不順으로 因하여 齋室에서 奉行하였다.

이 날 按廉使公 後孫은 물론 提學公派 會長을 비롯 여러 宗親과 翼元公派宗會에서 여러 종친들이 參詣하여 100여 宗員이 엄숙히 告由祭를 올리고 由綠碑除幕은 式을 생략하였다. 이로써 그간 按廉使公派 宗會의 숙원 사업을 이루었음으로 모두들 기쁜 마음으로 英靈의 是安을 祝願하고 永世不忘을 祈願하였다.



正義公派 定期總會 開催

其間 正義公派에서는 宗親들이 集團으로 거주하는 곳을 차례로 巡回하며 總會를 開催해 왔는데 금년은 지난 3월 29일 江陵에서 개최하였다.

총회는 먼 곳에서 오는 宗親을 위하여 강릉 시내 뷔페식당에서 먼저 점심식사를 하고 1시반경 50여 宗員이 參詣하여 允會 회장의 주관하에 선조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린 뒤에 회장 인사에 이어 正義公派 遺墟碑建堅事業을 提議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安東

市 臨東面 中平里 臨下岫 옆에 80여 평의 대지를 구입키로 결의하였다.

이 날 대종회에서는 斗會부회장이 參詣하여 격려사와 대종회 사업내용을 소상히 설명하고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끝으로 宗人個別人事 紹介를 마치고 지난번 忠烈公墓所 參拜하고 기념 촬영한 사진을 나누어 갖고 하오 3시경 산회하였다.

淸州宗親會 51回 定期總會 開催

지난 5월 31일(일) 오전 11시에 청주시내 巨龜莊에서 60여 宗親들이 參席하여 盛大히 定期總會를 開催하였다.

泰英총무의 사회로 개회선언과 성원보고에 이어 국민의례 및 선조영령에 대한 묵념을 마치고 奎馨회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이어 大宗會長의 激勵辭를 總務가 대신하였는데 淸州宗親會의 半世紀歷史를 讚辭하고 大宗會에서 98年度 事業을 展開하는 會員名簿發刊事業에 忠淸圈 즉 淸州地方에서 적극협조와 참여가 없이는 어려움을 말하고 이에 적극 협조를 당부하는 말로 격려사를 대신하였다. 다음으로 97년도 회계감사보고에서 모든 회무가 잘 되었음을 보고한 다음 98년도 예산안과 사업계획을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였다. 폐회를 선언하고 준비된 점심식사에 반주를 나누며 담소의 자리가 무르익어 奎馨회장의 선창으로 청주종친회의 무궁한 발전과 종친들 가정에 행운을 기원하는 건배를 다같이 제창하고 정담을 나누다가 하오 2시경 산회하였다.

翼元公派 定期總會 開催

지난 5월 1일(금) 효창원 백범 김구 선생 묘정에서 많은 종친들이 參詣하여 성대히 총회를 개최하였다. 회순에 따라 국민의례와 호국영령과 선조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고 璫會 회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감사보고와 회무결산보고, 사업경과 보고 또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과 98년도 사업계획 승인 등등 여러 가지 현안을 원안대로 통과한 다음 사진보감 발간사업의 결산보고가 있었는데 수단금이 1억 1천 1백6십 8만5천3백6십원중 4천 9백 6십5만 8천4백2십원을 경비로 쓰고 순이익 6천2백만 2만6천9백5십원의 잉여금을 보았다. 이로써 익원공파는 종제가 탄탄해 졌음을 다 같이 기뻐하며 환회에 넘치는 총회를 마치고 준비된 도시락과 음료를 들며 화기에 애한 담소 끝에 하오 2시경 산회하였다.



忠北 黃澗地域花樹會 大宗會館訪問

지난 4월 10일 按廉使公의 後孫 忠北黃澗地域花樹會 22명은 대종회관을 방문하였다. 여기 회장인 貞會현중께서는 평소 말로만 듣던 우리 안동김씨 대종회 중앙 본부를 종친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이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미루어 오던 중 오늘 회원들의 협력으로 갈구하던 대종회를 방문케 되었다며 흐뭇해 했다. 이 날 斗會부회장께서 찾아주신 종친들께 우리 대종회의沿革 및 구성체 또 업무현황을 설명하여 환영사를 대신하였다. 따라서 먼길에 찾아온 종친들께 답례로 忠烈公 할아버지 文武服차림 영정을 한장씩 선물하였다.

貞會회장께서는 약소하나 회원들의 뜻이오니 종사에 보태어 써달라며 金10萬원을 贊助하고 귀로에 안양 文英公 할아버지의 묘소를 참배하고 간담에서 11시 30분경에 대종회관을 떠났다.



槐山郡 宗親會 定期總會 開催

지난 4월 30일(목) 槐山郡宗親會는 定期總會를 盛大히 開催하였다. 會順에 따라 泰亨總務의 開會辭와 先祖英靈에 대한 묵념을 마치고 성원보고를 한 다음 泰亨監事가 97년도 회무감사를 보고하고 회장인사와 아울러 出鄉宗親紹介를 한 다음 대종회 斗會부회장의 격려사를 마치고 97년도 회계결산 및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이어서 임원선출(감사)이 있었는데 留任하기로 만장일치 가결한 후 산회하였다.

仁川宗親會 定期總會 開催

지난 5월 8일(월) 오후 6시 인천시내 동인천가든에서 弘植會長의 主管으로 定期總會를 開催하였다.

50여 종인들이 參詣하여 선조영령에 대한 묵념 후에 그간 종친회 사업에 공이 많은 종친들께 감사패와 부상을 수여하고 弘植회장의 인사를 마치고 97년도 회무감사보고를 한 다음 97년도 회계결산보고와 98년도 예산안 및 사업계획을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한 다음 준비된 식사와 반주를 들면서 오락시간으로 노래 자랑을 하여 상품을 시상하며 축제의 장을 열어 종친들의 단합을 다졌다.

여기 인천 종친회는 弘植회장의 아낌없는 협력으로 날로 발전하고 있음을 감사히 생각하며 더욱더 발전함을 祈願드립니다.

향전원에

代表 金在均

783-3166. 783-3167. 780-8477

FAX : 780-8478

자택 : 552-53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0

(프린스텔 1층1·2호)

大邱宗親會 定期總會開催

지난 5월 24일(일) 11시에 시내동 춘유원지에서 50여 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하였다. 회순에 따라 국민의례에 이어 선조영령에 대한 묵념을 마치고 仁會 회장의 인사와 대종회 총무(命會)가 대종회장을 대신하여 축사를 하면서 이번에 발간하려고 하는 회원명부발간사업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고 이에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할 것을 촉구하였다.

다음으로 지난 해의 회무에 노고하신 전임회장님께 감사패 수여가 있는 다음 97년도 회계 결산보고를 進宗 총무가 보고를 하고 98년도 사업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기타 토의를 한 다음 폐회를 선언하고 준비된 점心和 반주를 들며 답소를 하고 2부는 저마다의 장기자랑과 노래자랑을 한 다음 하오 3시경에 산회였다.

江陵宗親會 定期總會 開催

지난 6월 13일(토) 江陵 安東金氏 주부공과 종친회 정기총회를 회산결혼회관에서 가족들과 동반하여 榮燾 회장의 주관으로 100여 종인 가족들이 참석하여 성대히 개최하였다. 식순에 따라 개회를 선언하고 선조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린 후 회장의 인사말씀을 마치고 이어서 97년도 경과보고를 하였으며 98년도 사업계획과 97년도 결산보고 또 98년도 예산안 등을 원안대로 통과한 다음 제2부로 오락회를 시작하여 저마다의 장기자랑을 펼쳐 마련된 상품을 수여하며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종친간의 친목을 한층 더 다지었다.

이 날 대종회에서는 회원명부발간 사업추진위원 회의가 있어 참석지 못하였음을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며 많은 해량있으시기 바랍니다.

華 婚

- * 지난 6월 14일 正義公派會長 允會氏 三女의 결혼식을 안산 목화예식장에서 거행하였다.
- * 지난 5월 16일 按廉使公 19代孫 光明관광 사장 在周宗親의 次男 결혼식을 서울 개봉예식장에서 거행하였다.
- * 지난 4월 12일 提學公派 會長 鶴應宗親의 長男 결혼식을 충북 괴산예식장에서 거행하였다.

忠武公 時敏將軍 影幀奉安

지난 4월 30일 槐山郡 槐山邑 陵村里 방아재에 위치한 忠愍祠에 提學公派宗會와 在京槐山郡 宗親會, 또 槐山郡 宗親會가 極盡한 情誠을 모아 壬辰倭亂 三大捷의 하나인 晉州大捷의 勝將이신 忠武公 金時敏將軍의 影幀을 歷史的考證과 국내 제1인자인 畫伯 張愚成氏께서 수개월의 각고 끝에 완성하여 奉安式을 올렸다.

이 날 행사에는 忠愍祠院長 朴基鳳과 安東金氏陵村宗中代表이며 提學公派 회장인 鶴應씨의 주관으로 진행하였으며 지방유림 유생들과 안동김씨 종친들 또 괴산군수를 비롯 각 기관장, 유지들로 2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더욱이 이 지방 국회의원인 金宗鎬위원이 정사에도 바쁘게 참석하여 축사를 해 주었으며 대종회에서는 金宗鎬위원과 張愚成氏에게 회장님을 대신하여 斗會부회장께서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奉安式을 마치고 陵村宗中에서 준비한 술과 다과 및 점심을 들은 다음 하오 2시경 귀로에 올랐다.



金彰會 賢宗 善行記



여기 소개하는 종친은 郡事公 20代孫 察訪公 諱 堪의 12代孫으로 전라북도 향교재단으로 부터 善行訟德碑를 받은 賢宗으로 門中の 영광이옵기에 종보에 소개합니다.

金彰會 善行記

金彰會는 호 成齋이니 金堤郡 龍池面 新井里에서 1924年甲子9月18일에 出生하였다. 新羅敬順王의 第四子 大安君 諱 殷說은 安東受貫之祖요 傳于八世에 忠烈公 諱 方慶으로 爲一世上祖하고 是傳五世에 諱 七陽은 郡事公派祖이니 彰會는 公의 20代孫이요 浮休齊 察訪公의 12代孫이다. 謹按先世則 始自王族으로 世世相傳하고 中祖以下로 名公巨卿과 文武賢良이 繼世輩出하였으니 海東華閥이라 高祖 諱는 壽潑이요 曾祖 諱는 榮德이고 祖 諱 成默은 號碧愚이니 有文行하여 宗事爲先에 專念致重하니 舉世推重하고 考 諱는 在錫이며 砥는 紆州黃景模之女라 成齊는 承襲家風하여 早熟學業하고 性溫平和하며 當18歲에 鐵道局 裡里驛에 勤務다가 倭政末에 第1期 徵兵으로 長期服役中 天佑로 光復이 되어 還鄉하여 鐵道局에 復職한바 不幸히도 父親早世하니 五兄弟中 長男으로 侍奉偏母에 孝友根天하며 與四弟요 一室同居하면서 教育 및 就職까지 周旋하며 友愛尤篤하고 姻婭宗戚에도 無有間隙하며 40余年間 誠實勤務하고 退任後에 祖考의 遺訓을 받들어 宗事에 參與한바 郡事公派譜修刊時에 全北代表로 編纂에 積極 助力하여 刊行을 마치고 其間 察訪公 宗會 總理理事로 在任中에 松巖金榮得의 後任으로 宗會長을 맡으면서 崇祖睦族의 精誠어린 花樹同根의 親誼를 所信의 生活信條로 儒林의 稱頌이 多大하며 安東金氏 郡事公派宗會의 功勞牌도 받았다. 現下에 倫理가 頹廢되고 綱常이 沒落한 時代에 成齊는 美風良俗의 先頭者로 名門家의 眞實한 賢士이다. 配는 全州李氏와 密陽朴氏이며 有子에 四男一女하니 泰雨, 泰權, 泰炯, 泰成이며 女는 惠珍 夫에 文化柳鎮涉이라 五男妹 모두 社會에 進出하였으니 積德之家에 必有餘慶이 不誣可徵이라 如右略記

全羅北道 鄉校財團理事長

全義 李教冕 撰

白凡 金九先生 第49周忌 追慕式

지난 6월 26일(금) 오전 11시 사단법인 백범 김구 선생 기념사업협회(회장 李壽成)는 효창원 백범 김구 선생 묘전에서 백범 김구 선생 제49주기 추모식을 가졌다.

우리 대종회에서는 命會 총무와 의원공파에서 在憶, 仁鍾, 在倫, 南植 賢宗이 참석했다.

當選祝賀

지난 6월 4일 地自體 團體長과 自治區議員 選舉에서 當選한 宗親들께 祝賀를 드립니다.

- * 按廉使公 20代孫 慶會 46歲 忠北 鎮川郡守 當選
- * 按廉使公 21代孫 泰善 60歲 淸州 市議會議員에 當選
- * 按廉使公 20代孫 忠會 42歲 淸原 郡議會議員에 當選

孝婦 密陽朴氏 事績記

여기 紹介하는 孝婦朴氏는 安東金氏 察訪公 八代孫인 駿源의 婦人으로 古縣洞閣의 表彰을 받고 全北道 鄉校 財團으로부터 旌閭를 받은 훌륭한 분 이시다. 일찍이 密陽 朴德佑公의 長女로 容貌端正하고 품성이 溫順하며 法家의 教訓을 받아 凡節이 出衆하여 芳年 17歲에 吾 金門에 出家하여 婦德을 갖추고 媳父母님께 孝道를 極盡하였으며 朝夕問安은 물론 대소가사를 細深하게 稟告하며 夫君을 敬待하고 며느리로서 道理를 다하여 왔으나 원래 貧寒한 家庭이라 朝飯夕粥의 三時供養이 어려우니 隨時로 친가의 救濟를 받으며 晝耕夜績하면서 생계를 이어오고 婚需衣裳을 媳母님께 提供하고 夫君의 持病看病에도 게을리 아니하며 媳弟三名을 保護할제 때로는 衾枕을 뜯어 衣服을 지어 주는 美德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며 本人은 缺食을 하면서 蒼天을 바라보며 號哭을 한 일도 수십번이었다. 그럼에도 雪上加霜 부모님의 병환이 위독하니 救病求藥에 정성을 다할 때 후원에 設床하고 井華水를 올려 천지신명께 胥을 기

원하였으나 불행이도 임종하시니 에 통타가 혼절까지 하였다.

정신을 가다듬어 喪禮를 치르고 三祥을 극진히 치성하니 姻婭親戚과 인근 주민의 頌聲이 藉藉하다. 噫라, 부인의 일생을 회상할때 富豪家의 淑女로 貧困한 시대에서 한시도 放念할 수 없는 苦衷를 극복하며 가문을 번창케 하여 슬하에 有五男하니 榮采, 榮燮, 榮述, 榮先은 鄉里에서 推重을 받고 季에 榮得은 自幼로 효성이 지극하여 作手成家로 爲先事에 전력하여 宗事에 獻誠하면서 外家의 恩情을 못잊어 抱恨이 되었기에 外孫된 도리로 만분의 일이라도 보은하는 마음으로 외조 부모님의 묘정에 儀物을 謹設하니 亦 賢母에 賢子러라. 嗚呼라 위대하고 장하신 부인은 古縣洞閣의 彰도 讚揚도 모른 채 1946年 丙戌 12月26日享年 64세로 下世하시니 자손들의 애통은 물론 隣近諸族이 모두 슬퍼하였으니 부인의 덕행은 名傳千秋하리라.

全羅北道 鄉校財團理事長

全義 李 教 冕 撰

韓國 唯一의 綜合藝術의 殿堂



本社 社屋 全景

族譜 出版의 元祖

回想社 五大特徵

1. 創立 40 週年의 歷史와 全國族譜 90%以上을 出版한 實績을 자랑하는 族譜界의 元祖
2. 컴퓨터 組版으로 正確迅速한 電算化로 出版界에 一大革新
3. 編輯, 整書, 出版, 印刷, 製冊을 모든 過程을 同一場所에서 行하는 全國 第一의 綜合工場
4. 原稿에 誤謬가 있을時 組版前 即時 發見하는 30 餘年間 勤續한 技能者 多數確保
5. 1,000 餘坪以上에 達한 倉庫의 無料提供으로 1年以上 順暢 便宜提供

回想社 서울支社 開設

서울地域에서 族譜編纂 및 出版을 推進中인 門中の 便宜를 爲하여 本社에서는 서울支社를 開設하였읍니다. 各門中の 收單, 整書, 編輯, 組版, 校正에 이르기까지 모든 便宜를 서울支社에서 提供코저 하오니 많은 聲援과 移用있으시기 바랍니다.



族譜古書 出版製冊 回想社

本 社: 大田直轄市 東區 中洞 47-4
電話 (042) 253-9881-3, 256-1263
FAX (042) 253-9891 宅電 253-9892
서울支社: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4-3 청호빌딩 403호
電話 (02) 336-6783 FAX (02) 338-9875



오륜삼강(五倫三綱) 총론가(總論歌) 2

그 가운데 중한 마음
무엇에다 비할손가
글자 능히 알만하면
7, 8세에 입학하여
어진 스승 맞아다가
성경현전(聖經賢傳) 가르치니
효제충신 예의엄치
고루고루 가르치며
순순(諄諄)하온 말씀으로
가정 교육 시킬적에
성심(誠心) 공부 힘써하여
입신양명(立身揚名) 하는 때에
가성문호(家姓門戶) 빛을 내되
인도(人道)상에 범죄 말고
아무쪼록 선인(善人)되어
명전천추(名傳千秋) 희망이라
부모님의 깊은 마음
큰 희망이 이같으니
그 부모의 그 마음을
깊이깊이 생각하여
염염불망(念念不忘) 높은 은혜
빼끝마다 새겨 두라
시대 변한 오늘날에
교육제도 다르도다
7세부터 입학하여
보통교육 공부할제
6학년을 마치려면
드는 학비 적지 않다.
일년 삼백 육십일에
한결같이 정한 시간
새벽 밥에 이른 저녁
허구한날 어렵도다
엄동설한 새벽 바람
밥지을적 고생이요
병중고통 힘을 내어
빨래할 때 기막힌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부모 은혜 생각하면
일시반각(一時半刻) 어찌 놀며
깊은 느낌 없을소나
6학년을 마친 후에
중학교로 올라가서
고등과를 졸업하고
전문대학 마치려면
근 스므해 동안이라
학비 점점 높아가고
가산집물(家産什物) 탕패로다
복구하기 가망없고
생활곤란 막심이라
늙은 부모 주린 창자
기한박두(飢寒迫頭) 불쌍하다

그 부모가 나를 낳아
기르시기 고생하고
교육하기 진력(盡力)하여
재산 탕패(蕩敗) 여지 없네
그 부모의 일심 정력
부모 의무 다하였다
남녀 청년 학생들은
자식 의무 보답하소
남에게도 은혜받고
값는 것이 당연커든
부모에게 받은 은혜
값을 생각 없을손가
남에게도 빛을 지면
값는 것이 의무인데
부모은혜 깊은 빛을
어찌 아니 값줄소나
물리 학과 좋은 공부
화학 철학 신 교육을
차례차례 배울 때에
윤리도덕 연구하여
보본주의(報本主義) 잊지 말고
부모 은공 값아보세
부모 되신 귀한 마음
자녀 성취(成就) 시키실제
나이 점점 성장하면
어진 배필 구혼(求婚)하여
칭가유무(稱家有無) 불계(不計)하고
혼수범절(婚需凡節) 준비할제
인간 대사 으뜸이라
저희 보기 유감 없이
극진하게 차려 놓고
주단 연길(柱單涓吉) 왕래하며
일길 신랑(日吉辰良) 좋은 날에
옛 성현의 예법대로
육례(六禮) 절차 준수하여
납폐친영(納幣親迎) 순성(順成)하니
부모 은혜 생각하면
비할 곳이 다시 없네
생아구로(生我劬勞)하신 부모
육아근고(育我勤苦)하셨으니
욕보기덕(欲報其德)하올진댄
하늘 같이 끝이 없네
어와 남의 자식 된자
부모 은공 값아 보세
부모 은공 값으려면
만분지 일 값을손가
아무쪼록 지성(至誠)으로
잊지 말고 값아보세
호랑(虎狼)같은 맹수라도
부자 은의(恩義) 알고 있고
수풀속의 저 까마귀

반포(反哺)할줄 알았거늘
하물며 우리 인생은
만물중에 신성(神聖)한데
부모 은공 모를소나
부모 은공 값는 것은
온공순지(溫恭順志) 첫째로다
부모 명령 거스르면
미안하고 황송하다
부모님의 의향(意向)대로
승순(承順)하여 복종하되
미처 통촉 못하신 일
순한 말씀 간하여라
한번 두번 간하여서
끝내 불청(不聽)하시거든
호읍 삼간(號泣三諫) 효자로다
부완모은(父頑母嚴) 할지라도
악(惡)을 폭로 못하니
구체지양(口體之養) 받들 때에
혼정신성(昏定晨省) 먼저 하고
잡습고자 하신 음식
시장한 때 없으시게
때를 맞춰 봉양하라
입맛 잃고 허(虛)하시면
병환날까 염려로다
노인 기허(氣虛) 쉬우시니
자주자주 권하여라
좋은 음식 대하거든
부모 먼저 생각하되
적은 것을 혐의 말고
품에 겨다 드리어라
한(漢)나라 육적(陸績)이는
회굴(懷橘) 봉양하였으니
부모에게 향한 정성
누가 아니 칭송하라
부모 취침하실 때에
자리 펴고 물러날제
온량(溫涼)한가 자주 살펴
춤게 말고 덥게 말며
쇄소응대진퇴(灑掃應對進退) 절차
잠시라도 방심 말고
출필곡(出必告)과 반필면(反必面)을
진심으로 준행하여
동동촉촉(洞洞燭燭) 조심하며
평생 일심 받들어라
전국(戰國)때의 황향(黃香)이는
삼복 성염(盛炎) 더운 날에
부모 금침(衾枕) 펼쳐 놓고
부채질로 부쳐가며
더운 기운 물리치고
서늘하게 하였으니
일념재중(一念在中) 그 마음이

효자임이 분명하다
농사 길쌈 힘써하여
의복 음식 받들적에
가벼웁고 더운 의복
때를 잃지 말게하고
계돈구체(鷄豚狗彘) 갖추길러
입에 맞게 봉양하라
부모 봉양하는 일이
빈부귀천 따로 없고
부모 봉양하는 도리
승순양지(承順養志) 첫째로다
위태한데 가지 마라
부모 근심하시리라
주색잡기 하지 마라
부모에게 욕이 된다
불의(不義)한 일 하지 마라
부모에게 화가 오고
방탕허랑(放蕩虛浪) 하게되면
부모 명예 손상하니
남의 자식 몸이 되어
부모에게 누끼칠까
이 생각을 잊지 마라
몸은 비록 내몸이나
부모님의 혈육(血肉)이라
내몸 한번 손상되면
부모 혈육 상한거라
신체발부수지부모(身體髮膚受之父母)
어찌 감히 상할손가
부모 연세 백세라도
팔십먹은 자식 염려
때와 날로 깊으시니
그 마음을 생각하면
부모 은혜 감격한들
어찌 조심 아니할까
(다음호에 계속)

宗中動靜

按廉使公 18代孫이며 故思達博士의 親弟이시고 한국청소년개발원장인 思興賢宗께서는 지난 6월 12일 올림픽 파크텔에서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를 초청 청소년육성 방향과 과제 설정을 위한 워크샵을 열었다.

*投稿原稿 會報掲載연기 통보
의성군 점곡면 사촌리 창희宗親의 投稿와 서울 중계동 滿吉宗친이 투고 해 주신 원고는 지면관계로 다음호에 掲載할것임으로 이에 양해 바랍니다.



- 초대 문교부장관 안호상 박사: 한마디로 신선한 충격이다. 오랜 가물길에 흐르는 비내림과 같다. 우주 창조와 천지 조물 공법의 정경이며, 100만 년의 인류역사와 지구촌 티주민(提主民)인 우리 민족사를 당당히 밝혔다. 삼강오륜의 원전을 밝히는 등 유물선 삼도(三道)를 하나도 빠짐 없이, 大道妙法을 시작에서 끝까지 쉽게 밝힌 것은 이 시대 희극이다.
- 전 문교부장관 윤택중 박사: 이 4책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보전(寶典)이다. 가가호호마다 손중히 간직해야 할 보전임에 틀림없다.
- 민족학의 부흥제 점주영 박사: 이 4책이야말로 홍익 미학 세상의 진리를 밝힌 것이다. 민족정신 세계화의 초석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 영동전문대학장 신철균 박사: 오랜 광복일에 청명한 햇볕을 보는 것 같다. 우주 창조와 천지 조물의 공법을 밝힌 것은 아인슈타인에 비견할 바 아니다.
- 개천대학장 송호수 박사: 우주 창조와 천지 조물의 공법을 밝힌 것은 가치 경이적이다. 가정마다 대대로 물려 줄 보전(寶典)임에 틀림없다.
- 새시대 사명자(道人)연합회 배정석 회장: 우주 창조와 천지 조물의 공법을 극명하게 밝혔다. 인류 평화와 행복의 길을 찾는 도법의 역서를 제시했고, 자긍심이 아닌 존경의 자존심을 찾아 준 책이다.
- 송의여자대학 교수 배영기 박사: 천도(天道)와 인도(人道)의 진수를 밝힌 미 없는 대작이다. 길이 남을 보전임을 당당하게 자부감을 갖는다.

「천하대도법」, 「천하천부경」, 「천하대역사」, 「천하인부경」 우주 최고의 비밀을 밝힌다

人間의 生・老・病・死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는 없을까?
여기에 최고의 비밀이 있다!!

天下大道理 1024쪽, 값 38,500원

우리는 생로병사의 운명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는 없을까?
여기 치료하지 않아도 病(병)이 낫게 되고, 흉터나 주름살이 사라지며, 빠진 치아가 다시 나고, 세상의 재앙을 멸하며, 일가친척을 지옥에서 구원하는 등 무엇이든 마음먹은 대로 성취되어 끝없이 없게 되는 우주 최고 비밀의 묘법으로서, 이 비밀의 열쇠가 시작에서 끝까지 이 책 속에 모두 담겨져 있다.

萬學問의 原典인 天下天符經이 쉽게 풀이되어 大衆의 품으로 . . .

天下天符經 720쪽, 값 28,500원

일체 진리며 모든 학문의 뿌리 원천인 대 하리이자, 大道(대도) 묘법을 하나로 한 인류 최초의 경전이다.
千宗(천종) 萬經(만경)의 중추핵이며, 無上天理(무상천리)의 우주사상과 철학의 진리가 여기에 있다. 이 장엄함이 皆伏(개복)된 우주 창조와 천지 조물의 공법을 밝힌다.

圖書出版 春岡 TEL:(02)525-6783~4, FAX:(02)525-6785

왜곡된 역사관을 바로 잡자!!
반만년 역사가 아닌 100만 년 역사를 지닌 우리 민족이 세계 인류의 장손가임을 아는가?

天下大歷史 574쪽, 값 26,500원

인류가 100만 년 역사를 지닌 우리 조상에서 뿌리하였음을 아는가?
인류 시원인 繼天(계천)시대의 10만 년을 이어 선사 단군 선사시대, 한인, 한웅시대를 거치며 천하의 땅을 단군 8가 封土(봉토)이래, 삼한조선을 선포하느니 고조선이다. 봉토민은 5천 년 전 지각변동을 따라 각처로 뿔어, 오늘에 213개국, 100만 씨족 60억 인류이다.
이 전통을 이은 인류 큰집 장손가 나라가 대한 민족인 것으로, 반만년 역사가 아니라 백만 년 역사임을 밝힌다.

IMF를 극복하려면 人性을 찾아야 한다.
三綱五倫의 原典을 보라!!

天下人符經 548쪽, 값 26,500원

人間倫理道(인간윤리도) 총체의 원천이자, 참된 삼강 오륜의 원천이 여기에 있다.
오늘날은 범죄 소굴의 사회인양, 간악한 사기, 살인, 폭행 등 어느 한 구석도 성한 곳 없이 온갖 부정, 비리로 뒤범벅 뒀어 되고 있다.
무엇이 원흉인가?
우리는 윤리도를 되찾아야 한다. 이것만이 인류의 행복과 평화를 가져오는 길이다.